



글로벌 지식강국을 만들어가는 IT 기술혁신 선도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5년도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SoC 분야 신규과제 도출

차세대성장동력의 Infra/핵심 기술인 IT SoC 분야의 '05년도 신규과제가 확정되었다. '04년도는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핵심칩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05년도에는 휴대용 통신기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저전력 모뎀 핵심 IP" 및 소형화를 위한 "System in Package 기반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3G Evolution 휴대 단말 저전력 모뎀 핵심 IP" 개발로 차세대 이동통신단말의 경쟁력 제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Integration 기반 기술로서 제품의 소형화, 고성능화에 대응하는 "고성능 극소형 SIP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과제는 정보통신부 확정을 통해 신문공고 등을 통해 지정공모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다.

(문의 : 장선호 기술역 042-869-1293)

'04 Electro-0580사업 신규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

전자 IT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수입대체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도출, 발굴하고자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E-0580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가 '04.12. 7~9까지 3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신규사업 RFP는 18개가 공고되어 29개 기관이 응모하여 평균 1.6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술평가에서 60점이 넘는 과제에 한해 연구비를 평가하여 기술평가와 연구비평가를 합해 1등을 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는 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부터 과제를 수행한다.

(문의 : 박종원 선임 042-869-1293, 김남현 선임 031-6104-051)

2005 IT Industry Forecasting Conference

IT산업전망 컨퍼런스는 매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IT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차년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IT전략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유관기관들이 각 기관 고유 분야의 장점을 살려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상호 정보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금년에는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을 주제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서비스, 인프라, 신성장동력 분야의 36개 주제로 잠실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되었으며, 1,29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문의 : 이상용 042-869-1355)

ISSCC 2005 Seoul Press Conference

IEEE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 반도체 회로 학술회의 (ISSCC : International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는 반도체 집적회로 및 시스템 집적 (시스템온칩)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모든 발표논문은 최신의 (State-of-the-art) 반도체 회로 기술을 선보이고, 실제 칩을 만들어 실리온 검증(Silicon-proven)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학회는 전세계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연구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메모리 회로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52년간의 긴 역사를 통해 가장 큰 반도체회로 전문 학회로 자리하여, 매년 3000명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이고 있다.

내년에는 "Entering the Nanoelectronic Integrated-Circuit Era"라는 주제로, 메모리, 통신, 마이크로프로세서, 신호처리 기술, 영상 기술 등 설계에 관련된 233편의 논문발표와 3편의 주제 강연, 토론, 최신 설계 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학회에 한국은 강한 메모리 분야를 필두로 17편의 논문이 채택되었으며, 특별히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높아진 논문 기여도에 따라, 한국에서도 ISSCC 본부 핵심 인사와 반도체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의 참석 하에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12월 1일 오후 5시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진행되어 학술회의의 전체 개요 및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다.

(문의 : 박종원 선임 042-869-1293)

IT SoC 산업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IT-SoC 협회

제2대 IT-SoC협회장으로 송문섭 팬택 & 큐리텔 사장 선임

IT-SoC협회는 지난 11월 29일 가락동 IT벤처타워 송파 회의실에서 제2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총 109개 회원사 중 68개사가 참여한 이번 임시 총회에서는 제2대 IT-SoC협회장으로 1대 협회장인 송문섭 회장(팬택&큐리텔 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송문섭 협회장은 IT-SoC협회의 초대 협회장직을 맡아 이끌어오면서 우리나라 IT SoC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인정받아 회장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선출뿐만 아니라 정관 변경에 관한 건, 임원 임기 만료일 조정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되어 표결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역할이 일부 재조정되었으며, 임원의 임기 만료일도 변경되었다.

2대 회장의 임기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2006년 정기총회까지이다.

4th Asian IP/SoC Meeting 참가

IT-SoC협회 황중범 사무총장과 기술지원팀 김진혁 대리는 지난 11월 9일~13일 대만에서 열린 제4회 Asian IP/SoC Meeting에 참석했다.

Asian IP/SoC Meeting은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 4개국의 IP/SoC 관련기관들이 모여 구성된 콘소시엄으로 2002년에 창설되었으며, IP 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DB 교류 및 표준화 등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IT-SoC협회가 SoC 포럼 내에 표준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IP 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간의 IP 공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국을 대표하는 기관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5일간 열린 이번 IP/SoC Meeting에서는 각 기관들과의 회의뿐만 아니라 Global Unichips, TSMC, ITRI 등 관련 업체 및 기관 등을 방문하는 Company Tour Program, FSA Expo 관람 등 다양한 행사도 같이 진행되었다.

차기 Asian IP/SoC meeting은 2005년 11월 일본 STARC가 주최하는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코아로직 <2004 IT-SoC 대상> 수상

지난 12월 9일 2004 IT-SoC 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IT-SoC 대상(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업체로 코아로직(대표이사 황기수)을 선정했다.

코아로직은 이번 2004 IT-SoC 대상에 자사의 차기 주력 제품인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용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MAP, Multimedia Application Processor)'를 출품하여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코아로직의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용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MAP)'는 카메라 기능 위주의 기존 CAP(Camera Application Processor)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추가하여 캠코더폰, MP3폰, 게임폰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코아로직은 98년도에 설립되어 2004년 매출이 1,300억(예상치)에 이르는, 비메모리 분야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IT-SoC 대상은 우수한 SoC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심사는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을 비롯 시스템 업계와 SoC설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개별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심사위원별 점수의 합계 총점으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대상 수상 업체에는 상장 및 상패가 주어지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협회 주관 IR 참가시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ITSA

IT SoC핵심 연구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임주환 원장, 프랑스 INRIA(인리아)와 국제 공동연구 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임주환 원장은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현지에서 프랑스의 국립 연구소인 INRIA (인리아, 국립전산 및 자동화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Automatique)와 R&D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MOU는 ETRI가 프랑스 INRIA와 공동으로 양 기관간 공동의 주제에 대한 연구협력을 합의하고, 전반적인 IT 분야에서 공동과제 및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양국의 R&D 경쟁력 강화를 모색코자 하는 것이다. MOU 서명식에는 INRIA 소장인 Dr. Gilles KAHN(질 칸) 등과 ETRI의 임주환 원장, 디지털콘텐츠연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본 MOU를 통한 구체적인 국제공동연구 과제 추진을 위한 우선 협의주제로서 3차원 On-line 게임기술 개발 등을 설정, 공동연구과제 성립 등 양국 산업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TRI 임주환 원장, 영국 Cambridge대와 R & D 센터 설립 및 국제공동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MOU 체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임주환 원장은 2004년 12월 1일, 영국 현지에서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Cambridge 대학교와 R&D센터 설립 및 국제공동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금번 MOU는 ▲영국 Cambridge대학교의 공동연구센터를 ETRI내에 유치하고 ▲IT분야의 공동연구수행을 통해 IT·BT·NT 원천·융합 기술 분야 첨단기술을 확보함을 내용으로 하며 이번 MOU 체결로 우리나라의 R&D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식에는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형태근 정보통신협력국장, ETRI 임주환원장, 강석열 기반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Cambridge대학교에서는 Dr. Ian M. Leslie 부총장(Pro-Vice Chancellor)과 Dr. Bill Milne 공과대학장등이 참석하였다.

ETRI, H.264 기반 고화질 VOD 시스템 기술 개발 EBS 인터넷 수능강의,칠판 글씨까지 생생하게 본다

-2004. 12. 2 소프트웨어포에 발표, 2005. 2. 1부터 EBS 수능강의 시범사업 돌입 - EBS 수능강의 서비스가 2004년도 수능능력 시험에서 8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EBS 인터넷 수능강의 서비스를 칠판 글씨까

지 생생한 TV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임베디드S/W연구단(단장 김홍남)은 ▲녹화방송은 물론 생방송까지 일반 TV 화질(VGA급, 640×480 해상도)의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변환, 제공하는 고화질 인코딩 시스템 기술과 ▲인터넷 모뎀에 연결해 TV화면으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IP 셋탑박스(IP-STB) 기술을 독자 개발하였다. 본 기술이 적용되면 1Mbps에 불과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일반 TV를 통해 케이블 방송과 동등한 화질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방송사 등 콘텐츠 제공사에 설비되는 영상시스템 장비가격은 최대 1/20로 낮춰지게 된다. ETRI는 이 기술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포에 발표하고, EBS는 내년 2월 1일부터 이 기술을 적용한 고화질 인터넷 수능강의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ETRI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지상파 DTV 동일 채널 중계기술, 미국 DTV방송 표준(ATSC) 단일 채널 방송망(SFN) 기술권고로 채택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http://www.etri.re.kr>) DTV시스템연구팀(팀장 김승원 책임연구원)이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인 '지상파 DTV RSN 중계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일 채널 중계기술(EDOCR, Equalization Digital On-Channel Repeater)이 미국 단일 채널 방송망 표준(ATSC SFN)의 기술권고로 채택되었다(기술권고 제목 : "Design of Synchronized Multiple Transmitter Networks").동일채널 중계기술은 음영지역 해소 및 방송지역 확대 등의 목적으로 방송 중계기를 설치할 때마다 별도의 주파수 채널을 부여해야 했던 기존의 중계기와 달리 송신소와 같은 주파수 채널로 중계소를 운영할 수 있어 주파수 자원을 크게 절약하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번 성과로 북미는 디지털 방송망의 단일 채널 방송망(SFN, Single Frequency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 ETRI의 동일채널 중계기술을 채택 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관련 업체의 북미 진출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TRI는 2003년부터 KBS와 공동으로 본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같은 해 10월 세계 최초로 동일채널 재생 중계기를 개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북미지역 DTV 표준에 본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표준화 활동에 착수하였다.ETRI는 동일채널 중계기술을 작년 10월 미국의 DTV 표준기구인 ATSC (Advanced Television System Committee)에 발표하면서 미국식 DTV 표준을 공략, 1년도 안 되어 미국 단일 채널 방송망 구현을 위한 기술권고로 채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IT SoC 산업육성의 견인차

KIPA IT-SoC사업단

산업기반조성사업의 2004년도 결과 설명회 개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IT-SoC사업단은 SoC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도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21일에 개최하였다. 중소기업의 의견청취 위주로 이루어진 공청회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사용자 적용방안이 논의되었고, 고가의 사용자 부담으로 상용 IP를 적용한 SoC 제작을 하기 힘든 기업들에게 시제품 제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맞춤형 IP지원 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공청회 외에도 IT-SoC사업단의 중소기업 지원 성공사례와 신규 도입 IP(ARM 922T, 926EJ, 8051, AES)를 소개하고 EDA 공급사의 Verification 세미나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T SoC 산업을 육성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인 IT-SoC사업단의 산업기반조성사업은 SoC 중소벤처기업의 IT SoC 설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EDA/IP/파운드리/시험 등을 원스톱서비스체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IT SoC 창업보육지원실 입주기업 설문조사 실시

기술력 있는 신생 SoC 개발중심의 기업들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EDA툴, 반도체설계 IP, 고성능 계측장비 등을 비롯한 설계 개발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지원실의 효과적인 지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입주기업 15개사 중 12개사가 응한 설문조사 결과, IT-SoC사업단의 지원이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정보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입주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지원, 인력 확보를 꼽았으며, 연구개발비, 인프라, 마케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사업단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IT-SoC사업단은 대학과 기업에 공동연구비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대학에게 부여되는 상호보완적 역할과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4년도 4차 입주기업을 모집중인 IT-SoC사업단의 창업보육지원실 졸업업체는 53개사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엠텍비전, 코아로직, 플러스칩 등이 있다.

(입주안내: KIPA IT-SoC사업단 (www.asic.net) 공지사항 참고)

플랫폼 기반 설계실습을 강화한 2004 동계 IT-SoC 설계특론 개설



[그림 1] 동계 IT SoC 설계특론 교육체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석, 박사급 SoC 설계인력 및 산업체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설계특론은 IT-SoC전공인증과정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12월 6일부터 2005년 2월25일까지 하계에 이어 두 번째로 IT-SoC아카데미에서 개설된다. 2004년도 동계 설계특론은 하계 설계특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개설 규모나 구성에 있어서 보다 진취적이고 성숙된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개설 강좌의 구성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요소기술 위주로 진행되었던 하계와는 달리 총 4개의 코스웨어 카테고리, 1) SoC 플랫폼(DMB/모바일폰) 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 2) SoC 제품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 3) SoC 요소기술 설계실습 코스웨어, 4) SoC 전공인증 설계실습 코스웨어를 구성하여 강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응용기술 부문을 확대하여 총 32개 강좌를 개설한다. 특히 "SoC 플랫폼 기반 설계실습 코스웨어"는 DMB 부문과 모바일폰 부문의 특화된 교육을 위해 교육용 SoC 플랫폼을 구축하여 설계특론 강좌에 활용하도록 기획하였다. 본 코스웨어가 정착되면 대학(원) 교육에서 접근하기 힘든 플랫폼 기반 실습 교육이 가능하고 산업현장에서 환영받는 강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SoC전공인증과정 참여대학(원) 현장방문설명회 개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SoC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IT-SoC 전공인증과정에 대한 안내와 추진 방향 논의를 목적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5일에 걸쳐 37개 참여대학(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1명의 방문교수와 IT-SoC사업단 직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전공인증과정 개요, 운영 및 참여 현황 등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여 대학(원)이나 석, 박사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설명회의 참석자는 교수 113명, 석, 박사 학생 493명으로 전체 전공인증과정 참여자의 40%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전공인증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얻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05년도 첫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전공인증과정 인증서의 유효성, 전공필수/선택 교과목 범위 및 과목수 확대, 필수 이수과목 수강에 대한 애로점, 교재 개발 일정, '05년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2005년도 전공인증과정 운영계획과 교과과정 기획 및 세부 운영방안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촉박한 준비기간과 설명회 개최 일정으로 각 대학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랐던 2004년 IT-SoC전공인증과정 현장방문 설명회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는 설명회 일정을 정례화하고 대학별 방문 시간을 충분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IT-SoC사업단은 검증받은 설계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IT-SoC전공인증과정의 참여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IT-SoC사업단

SoC설계의 핵심요소인 IP설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

IP거래를 위한 보완된 표준 법률문서 발표

IP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IP 유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표준 법률문서인 NDA(Non-Disclosure Agreement), LoI(Letter of Intent), 표준 계약서를 새롭게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그동안 SIPAC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IP거래를 할 수 있도록 IP거래 절차에서 필요한 표준 비밀유지약정 및 표준의향서와 함께 IP 제공자와 사용자간의 법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나타낸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법률문서는 미국 Law firm인 Oblon사와 협력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제 IP 거래를 위해 필요한 항목과 함께 여러 가지 필수 고려사항들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IPAC 홈페이지(<http://www.sipac.org>)를 통해 이와 같은 법률문서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아래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Wish IP Service 제공

IP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IP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의사가 있는 기관과 IP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기 위하여 SIPAC은 지난 9월부터 Wish 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P 사용자는 필요한 IP를 SIPAC DB에서 찾기 못할 경우, IP Trading System의 Wish IP 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IP(Wish IP)의 사양 및 특징을 등록함으로써, 해당 IP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관(업체 또는 대학)을 찾아 원하는 IP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IP 개발 및 판매를 원하는 기관은 SIPAC에 Wish IP 서비스 기관으로 등록함으로써 IP 사용자가 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SIPAC에 등록된 Wish IP 정보를 통해 보유 IP를 판매하거나 해당 IP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SIPAC의 Wish IP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SIPAC 홈페이지(<http://www.sipac.org>)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용가능하다.

The 4th Asian IP/SoC Meeting 참가

“Asian IP/SoC Meeting”이 2002년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벌써 네 번째를 맞게 되었다.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모여, 아시아권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시작된 본 회의의 주된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 IP 카탈로그 정보 및 온라인 IP 데이터베이스 공유
2. IP 넘버링 시스템 공동 개발
3. 반도체 IP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안 공동 제정
4. 연구 목적의 공개 IP 공유

위 협력 사항은 작년 SIPAC이 주최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공동 추진 목표이다.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의 협력 사항에 대한 각 국가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 차기 회의 전까지의 협력 사항을 결정하였다. 4차 회의 때부터 홍콩이 새로운 멤버로 결정되어 홍콩 사이언스파크(HKSTP)가 홍콩의 대표로 본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총 4개 국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되게 된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IP의 효과적인 공유 및 관리를 위하여 IP 넘버링에 대한 제안을 각각 하였다. 또한 한국의 SIPAC과 IPEAN은 DB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DB synchronizer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밖에 IP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안에 대하여 각 국가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으며, 이를 하나로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차기회의는 2005년 11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차 회의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IP 넘버링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SIPAC과 대만의 STC의 제안을 서로 검토하고, 각 국가의 대표자를 통한 의견 조정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함
2. IP 품질평가를 위한 표준안을 각 국가의 대표기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표준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함. 따라서 각 국가별로 표준안 정보를 교환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함
3. 시스템 수준의 개발언어는 SoC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임.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차기 회의까지 이에 대한 각 국가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지능형 SoC 로봇워 2004 대회 우승팀 경기 시연 선보여

부산벤처플라자 &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시회의 주최측으로부터 지능형 SoC Robot War 시연을 요청받아 12월 9일-12일 간 본 행사에 SoC Robot War 시연팀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올해 우승팀의 경기시연과 SoC 태권로봇 경기를 각각 시연하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SoC 태권로봇은 휴머노이드 형태의 지능 로봇으로 머리 부분에는 장착된 카메라가 상대방로봇을 인식하여 태권도 동작으로 공격, 방어하는 형태로서, 상대방로봇을 3번이상 다운시킴으로써 승패가 결정되는 경기이다. SIPAC은 2005년부터 기존의 지능형 SoC Robot War 뿐만 아니라 SoC 태권로봇 대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